

“고난의 아픔, 잊지 않습니다”... 세월호 5주기

“별이 된 아이들과 상처받은 이들에 위로를”

전북대 예술대 재학·졸업생 추모공연

“5년 전 오늘,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 하나하나 몸짓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전북대학교 음악과와 무용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구성된 모임 ‘페들(Petal)’이 세월호 5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1시 구정문 앞의 거리에서 추모 공연을 펼쳐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이들은 이날 ‘기억의 계단’을 주제로 생상스의 백조와 피아졸라의 겨울 등 다섯 곡의 클래식을 직접 연주하고 그에 맞춘 창작 현대무용을 선보였다.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은 이날 수화여행으로 들뜬 마음의 아이들의 마음과 사고 당시의 불안함, 아픔 등을 아를담고도 서글픈 선율과 몸짓의 언어로 표현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북대학교 음악과와 무용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구성된 모임 ‘페들(Petal)’이 세월호 5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1시 구정문 앞의 거리에서 추모 공연을 펼쳤다.

이들이 이날 이러한 공연을 기획하게 된 연유는 바로 ‘잊혀짐’에 있다.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왔던 일이 서서히 잊히는 것이 서글픈기 때문,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여행을 떠날 때의 설렘과 불안에 떨던 마음, 아이들의 상처, 그리고 평생 한으로 남은 자들의 아픔에 대해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고.  
정치현 대표는 “예전에는 자주 슬프고 자주 생각

났던 일인데 자주 기억나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의미를 있고, 사건에 대해 인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공연을 기획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여행을 떠날 때의 설렘과 불안에 떨던 마음, 남은 아이들의 상처, 그리고 그에 대한 위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한편, 페들은 17일 오후 전북대 사범대학 예체관 3층 예연홀에서 같은 공연과 함께 학부모 사연 낭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참사가 주는 ‘공감’ 배움터로... 전주 우림중, 5주기 추모

전주 우림중학교(교장 배주열)에서는 4월 한 달을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공감(共感)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배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주 우림중학교에서는 4월 한 달을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6일,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추모 행사를 가졌다.

전주 우림중학교는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부터 시작해 올해 5주기 행사까지 학생회 주관으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협력해 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실의 행사로는 노란 리본에 추모의 글을 작성하여 교문 양쪽 울타리에 묶는 ‘노란리본 매달기’,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그려서 교정에 전시하는 ‘추모 포스터 전시’, 그리고 ‘추모 현수막 게시’로 이뤄졌다.  
실내 행사로는 전교생이 직접 추모 리본을 만들어 추모의 달(4월) 동안 가방에 패용하는 ‘추모 리본 만들기’, 현관에는 ‘기억 그리고 다시 볼’ 배너를 게시하였고, 부모에 대해 추모 게시판을 만들어 추모의 글을 메모로 남기는 ‘추모 게시판 운영’, 세월호 관련 도서 전시와 추모의 글 필사하기를 하는 ‘도서관 행사’로 꾸며졌다.  
학생회(9대 학생회장 유다영) 주관으로 16일에는 본 행사로서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추모 행사를 가졌다. 추모 UCC 감상, 추모 묵념, 추모 편지 낭독, 추모 시 낭송, 학생회가 만든 추모 UCC 감상, 마지

막으로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 추모 합창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자신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

봄으로써 공감(共感)이 주는 가치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고,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장은성 기자

삼양그룹·휴비스, 20일 전주서 ‘자연사랑 글·그림 축제’

삼양그룹(회장 김윤)과 휴비스(대표 신유동)가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제22회 자연사랑 과파파글 글·그림 축제를 오는 20일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는 20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휴비스 전주1공장 운동장에서 열리며, 초등학생은 그림 그리기, 중학생은 글짓기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사진 참가 신청 및 참가비는 없으며 필기구, 그림 도구(화관 포함), 돗자리 등을 준비해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레크레이션, 환경 퀴즈 대회, 공연, 전시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도 행사장 곳곳에서 함께 열린다. 행사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1주일씩 순연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 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장관상), 금상, 은상 등 총 528명을 선발해 상장과 장하곡, 문화상품권 등이 수여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이민로·하기원 교수팀 우수학술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 소화기외과 이민로·하기원 교수팀이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치료 연구로 ‘우수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민로·하기원 교수팀은 지난 5월부터 7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대장항문학회 학술대회’에서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치료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발표한 논문은 ‘선행 항암방사선치료와 근치적 절제술이 진행된 0기 및 1기 직장암 환자에서 보조 항암화학치료의 종양학적 의미 (Adjuvant chemotherapy after neoadjuvant chemoradiotherapy and curative surgery for patients with ypT0-2 NO rectal cancer: A meta-analysis)’을 주제로 한 것이다.  
또한, 논문은 선행 항암방사선치료 후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 받은 직장암 환자에서 병리학적 병기가 0기와 1기일 경우, 수술 후 항암화학치료가 환자의 생존율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해당 환자에서 선택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이민로 교수 하기원 교수

군산시, 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만들기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군산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16일 열린 이날 교육은 ‘내일을 위한 change up!’이라는 주제로 김혜영 군산성폭력상담소장의 폭력예방 강의로 진행됐다.  
김 강사는 4대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미투운동으로 2차 피해 없는 직장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왜곡된 성 인식 및 성문화개선과 건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군산=김영훈 기자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순창사무실 이전 개원 현판식

사단법인 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이사장 김상수)는 창립 28주년을 맞아 최근 순창에서 회원 및 각계인사 80여명이 참석해 순창사무실 이전 개원 현판식과 2019년 정기총회 및 옥천문화 제10집 출판기념회, 옥천부원군 조원길 묘소 및 묘표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호 국회의원, 순창군 의회에서 신정아 부의장을 비롯하여 조정희, 이기자, 송준신 의원,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조태봉 과장, 재경순창군향우회에서 양정무 회장과 최순이 여성위원장, 양양은 전임 여성위원장이 참석하여 (사)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의 무궁한 발전과 행사를 축하해 주었다.  
서울에서 김상수 이사장, 김종세 회장, 한희순 직전 이사장, 박광권, 설군태, 조정훈, 최진 상임이사, 노장택 편집위원장, 최순임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전현직 임원 40여명이 전세버스로 고향을 찾았다.  
순창에서는 장교철 소장과 양상화, 양병완 향토사학자, 강병문 상임이사, 서울에서 40여명이 참석해 행사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행사는 (사)옥천향토문화사회연구소 현판식, 정기총회, 출판기념회, 옥천부원군 조원길 묘소 및 묘표 답사 등 총 4부로 진행됐다.  
/순창=이왕원 기자

원광대 박맹수 총장, 빵·음료 등 간식으로 학생 격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이 아침 일찍 총학생회장과 함께 재학생들에게 빵과 음료 등 간식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맹수 총장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1학기 수시시험 기간을 앞둔 16일 아침 중앙도서관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빵과 음료를 건네며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에 나섰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경찰, 보이스포싱 피해 금융기관 직원 감사패 전달

군산경찰서(서장 안상엽)는 기지를 발휘해 고객의 보이스포싱 피해를 막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16일 군산경찰서 수사지구대에 따르면 익산군산축협 고보듬 주임이 지난 10일 ‘신용도 향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범인의 말에 속아 적금을 해약하려 온 피해자 A씨의 거동을 수상히 여기고 기지를 발휘해 즉시 대환대출 사기 보이스포싱임을 직감하고 해약이 곤란하다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는 막무가내로 해약을 계속 요구했고 이에 고 주임은 약 20여분간의 끈질긴 설득과 112 신고로 거액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보이스포싱 사기 피해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경찰 여성청소년과, 영만초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익산경찰서(서장 박헌수) 여성청소년과에서는 16일 익산 익산영만초등학교에서 학교전담 경찰·교사·학부모·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등 꽃길 안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 사이버·정서적 폭력의 증가 추세에 맞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17 신고방법, 학교폭력 유형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 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남원경찰,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남원경찰서는 16일 경찰서 4층 민인홀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남원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발대식에는 경찰서장,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김태수), 녹색어머니연합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활동회원들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신규 녹색어머니연합회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인사

전북도

◇승진 ▲과장급=양해중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장 ▲팀장급=한해자 보건의료과

제39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문화행사

- ▶ 일시: 4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 ▶ 장소: 전주 화산체육관
- ▶ 주최: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조직위원회
-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전북도, 국제로터리3670지구
- ▶ 문의전화: 286-6678, 285-6676